

이 시대의 대학총장, 그는 누구여야 하는가



김 병 목 | 경희대학교 총장

김병목

경희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긴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일본 긴키대학 객원교수,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경찰청 개혁위원회 위원, 전국대학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상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이사, 서울신문사 명예논설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경희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세계정세로 본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대한민국헌정사”, “남북한 헌법상의 통일관계조항 비교연구”, 『생활과 법률』, 『북한의 인권』, 『신헌법』, 『헌법체계론』 등이 있다.

금년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OECD 교육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고등교육이 국경 간 이동이 확대되고, 시장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등교육의 질과 형평성, 효율성 재고를 위한 공동 제안과 모색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학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정보혁명과 더불어 사회변화와 대학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의 변화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저출산으로 인한 진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더 가치를 두는 사회로서, 지식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수명은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낼 수 있는 지식정보와 창의적 인재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일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할 지식과 인재육성의 거점인 대학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커지게 됨에 따라 대학은 전에 비해 다원 기능화(multiversity)로 변모되었다. 또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학문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해야 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 우리 대학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진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는 정원 미달과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왔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개혁의 핵심은, 모집인원의 확대와 학과 신설 등과 같이 규모를 키우고자 노력하였고 외형설비의 확충과 종합대학으로의 변신에 중점을 두는 등 비교적 교육중심의 단일체제였던 university에서

양적·질적 차원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교육·연구·사회·봉사 등으로 다기능화된 multiversity로 변화를 추진해 온 것이다. 한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BK21 등의 대학특성화 사업도 대다수의 대학들이 전공 분야나 학과보다는 대학의 이름이 브랜드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학의 홍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에서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국내의 대학이 과연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여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가? 무한경쟁을 통한 줄 세우기 시대인 이 시대의 대학총장, 그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문자답을 해보게 된다.

세계의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히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가?', '한 분야를 리드해 가는 탁월한 교수와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확보는 가능한가?' 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한 정당이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 그런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학의 재정적 확보를 위해 입학 정원 외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불 정책'으로 발목을 잡으면서 경쟁하라고 등 떠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 다양화·조직화·다기능화되면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대열에는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4 IMD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60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하위이고, 이 중 교육경쟁력은 44위이다. 산업 여건, 교육 여건, GDP 대비 공교육비가 52위로 최하위인 데 비해 국민의 높은 교육 열의로 고등교육 수혜비율은 5위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교육체계와 대학교육이 경제사회 요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가'와 '유능한 엔지니어를 잘 길러내고 있는가'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투자 기술 이전 정도도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또 상하이교통대학교가 실시한 세계대학의 순위를 보면 100위 이내의 대학으로 미국은 51개, 일본은 5개 대학인데 비하여 한국은 전무하다. 또 500위 이내의 대학은 미국이 170개, 일본이 36개, 중국이 16개인데 비해 한국은 8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에서 순위 100위권 내에 들지 못하였으며, 아시아지역에서도 10위권 내에 진입한 대학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동문과 교수, 연구업적, 그리고 인재의 산실인 대학도 없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역사가 100년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대학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 것은 겨우 30여 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총장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법 75

조 2항에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학생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총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한때는 총장의 위치가 상아탑의 거인, 지성의 상징 또는 대학의 행정 수반으로서 대학 경영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카리스마적인 존재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사회 속의 하나임을 전제할 때 대학의 본질적 기능 즉, 교육, 연구, 사회 봉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조직과 관리체계를 관리하고, 외적으로는 대학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대학총장은 대학의 대표자, 지도자, 행정 관리자, 교육자,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총장은 누구여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총장은 90년대 초에는 행정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었고, 90년대 중반에는 대학경영 능력과 구성원의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도덕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 대학의 관리 능력과 경영 능력은 물론, 특히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뽑고 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갖춘 인물은 찾기 힘들다.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서머스 총장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KAIST의 러플린 총장도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학을 떠나고 말았다. 결국 이 시대의 대학총장은 그 대학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을 이루고, 재정적 확보는 물론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그 대학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읽고 밝은 비전과 목표를 세워 강하게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총장은 행정의 대표자로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은 지·덕·체 중심의 인간교육은 물론 대학의 독창적 인재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사회진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교육적 시스템 양자 간의 성격을 모두 갖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총장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강하게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감을 키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방향기도 없었다. 그러나 훌륭하게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항해하는 대학호의 선장 우리나라 대학총장은 노도 짓고 방향기도 잡아야 한다.

대학평가와 총장 관련 『대학교육』의 출간에 즈음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대학총장**

